

#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 문제와 디지털 시대의 해결방안 모색

## Issues of Education Expenses and Policy Implication of On-Line Education Service for the Middle Aged Families

대전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벤처산업학과

교수 손상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정복지학과

교수 정영숙\*\*

Major of Venture Business for Children, Taejon University

Professor : Sohn, Sang-Hee

Major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Professor : Chung, Young-Sook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xpenditure on children's private, after-school education, perceptual need for private education, and budget planning pattern for the expenditure of education applying survey data, and to investigate current situation to identify solving planning for digital age, taking on-line educational service system and internet financial planning for children's educational expenditure into account. Under the purposes, this study especially focused on the condition of on-line educational service system and the merits as well as problems of the system, the need for household financial planning for children's education, and the condition or nature of internet financial planning system, in terms of providing market information and of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

▲ 주요어(Key Word) : 중년기 가족(middle aged family), 사교육(private education), 재무계획(financial planning), 온라인 교육서비스(on-line education service), 가계복지(family welfare)

### 1. 서론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을 배출한다는 의미에서 개인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교육투자에 큰 관심을 가져 왔고, 50년대 이후의 교육투자자로 배출된 인력이 오늘날의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 이러한 교

육의 중요성은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이나 제도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은 우리 사회의 교육열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교육열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이유는 학력이 교육의 목표이자 결과인 것으로 오인하는 측면이 없지 않고, 일류대학 입학이 미래의 전망과 직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년기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대학에 그것도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공교

---

\* 주 저 자: 손상희 (E-mail: sanghee@dju.ac.kr)

\*\* 교신저자: 정영숙 (E-mail: annach@daegu.ac.kr)

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교육에도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교육비의 무리한 지출이 가져오는 가계압력도 당연히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비 지출은 여유만 있다면 늘리고 싶어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01)에 의하면, 2000년 공교육비가 33조 5천억 인데 반해 사교육비는 3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교육에서 공교육이 차지하는 몫보다 사교육이 차지하는 몫이 큼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계가 부담하는 교육비가 엄청나다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며, 우리사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과도한 사교육비가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급기야 과외금지 20년 만에 사교육은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과외를 인정하고 과외신고제와 같은 제도가 정립되고 있다.

과다한 사교육비는 소비항목들 간의 상충효과 및 유기적 관계를 고려할 때 가계에 미치는 영향 그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타 항목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가계가 교육에 돌릴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교육비의 증가는 다른 지출항목에 대한 압박을 불러올 수고 그러한 부담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경제상황이 위축된 경우에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한 연구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지난 70년대 후반 이래 94년까지 불변가격으로 10.2배, 경상가격으로는 4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지출은 전혀 감소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경제한파나 변동으로 인한 압력 중 중년기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항목이 바로 교육비이며, 이러한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가계마다 다양한 방법을 간구하고 있다. 개인교습이나 학원수강을 부모들의 품앗이 과외나 인터넷 및 위성교육방송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과 더불어 가계가 취하고 있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은 사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 항목의 소비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급박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가계의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투자과 관련된 현상들의 기저에 흐르는 경제적 유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 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과외를 법으로 막기보다 과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인프라의 기초가 마련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된다면 공교육비 뿐 아니라 사교육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온라인 상에 가상대학과 같은 공교육 시장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과외 시장이 형성되어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시장규모 자체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겐텀이 6대 도시 고교생과 학부모 1,2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유학 수용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학위만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사이버 대학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간 및 공간, 속도, 거리, 대화방식, 사회성격 등의 변화를 불러오는 디지털 세상이 전통적 교육 이외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이 대두되면서 가계의 자녀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것은 다 줄일 수 있어도 교육비만큼은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 가계의 교육비 문제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 지출실태를 살펴보고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변하여 소득이 감소할 경우 교육비 지출을 어떤 방식에 의해 조절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다른 소비항목들과 더불어 가계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디지털 시대의 교육비 관리 방안과 생애주기상의 교육비 설계를 위한 인터넷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이상을 종합하여 디지털 시대에 가계 교육투자의 합리적인 지출과 건전하고 안정성 있는 가계재무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 지출실태와 이들 가족이 취할 수 있는 자녀교육비 관리 방안으로 온라인 교육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비 지출을 위한 인터넷 재무설계 서비스의 활용방안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교육비 지출실태와 재무 문제

### 1. 자료 및 척도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교육비 문제는 소득계층 및 경제적 변동 상황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 요인들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경제적 상황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수집되었다. 경제위기 이전상황을 반영하는 자료는 1995년 9월~11월에 중·고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고 또 그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512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경제위기 이후상황을 반영하는 자료는 1999년 2월~3월에 138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수집된 자료는 동일한 측정도구가 적용되었고 표집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99년 자료의 조사대상자 중 57%(78가구)는 95년 조사에 포함된 가계이며 나머지 43%(60가구)는 새로이 표집된 가구들이다. 1, 2차 조사에 중복 표집된 57%가구의 선정은 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는가의 여부가 그 기준이었으며, 새로이 표집된 43%가구는 95년 표본과 사회통계학적 배경(특히 가계소득과 가족수)이 유사한 가구를 선별하였다. 두 데이터 파일은 하나로 통합되었으며년도 변수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가계복지를 구성하는 항목들은 소득수준, 소비생활, 주거생활,

저축수준, 비상준비금, 노후재정준비금, 상대적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한 10문항이며, 측정범위는 1점이 '매우 불만'을 5점은 '매우 만족'을 나타낸다. 이들 항목들의 내적일치도를 반영하는 Cronbach's  $\alpha$ 는 0.87로 나타났다. 가계복지와 소비항목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항목별 실지출액 대신 총 소비지출액에 대한 백분율을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가계 지출의 절대액수는 소비패턴의 차이이기 보다 소득의 차이를 나타내기 쉬운데 반해 소비항목의 총지출액에 대한 상대적 지출비율은 소득의 효과를 배제하여 실제 소비패턴의 차이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둘째, 총지출에 대한 비율은 그 자체가 소비의 상충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소비지출수준과 균형을 논할 수 있게 해 준다. 셋째, 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는 그 구조가 갖는 의미와 그 지출구조 이면에 내재된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소득계층은 중산층의 평균소득을 중심으로 평균이하를 저소득, 평균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가계재무관리 측면에서의 예산방식은 고정예산방식과 변동예산방식으로 구분되며, 고정예산방식은 단일항목인데 비해 변동예산방식은 4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항목들은 질적 척도로 경험유무를 반영한다. 경제위기 전후의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변화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소득계층별 사교육 이용률 및 공교육비 규모와 가계소득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고정예산방식을 적용하는지 변동예산방식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는 분산분석(ANOVA)을 적용하였고, 경제위기 전후의 사교육비 지출수준 및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변화는 t-test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소비지출과 가계복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2. 교육비 지출실태

소득계층별 사교육 이용률 및 평균지출액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계의 과외이용률은 58.0%, 중산층은 71.2% 그리고 고소득층은 80.4%로 계층이 높을수록 사교육 이용률도 높았다. 평균지출액도 저소득층은 7만 8천원 정도인데 비해 중산층은 16만 5천원 그리고 고소득층은 42만 4천원을 할애하고 있어 저소득층보다 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차이는 월평균 사교육비의 편차값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즉 세 집단 모두 평균보다 편차값이 더 크고 그 중에도 고소득층의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집단내 뿐 아니라 집단간 분산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 형태 중에서 최다이용 유형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일반 단과학원인 반면 고소득층은 고액과외 형태를 띤 교사 1명에 학생 1명의 개인지도를 주로 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계층별 공교육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사교육비와는 달리 공교육비인 대학등록금은 학교마다 큰 차이가 없으므로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계의 연간 공교육비는 5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소득계층별 사교육 이용률 및 규모와 공교육비

소득 계층	사교육			공교육비: 한 학기 대학등록금1)
	이용률	월평균 사교육비 (SD)	과외유형별 이용률	
저소득	58.0	78,000 (86,000)	일반단과학원 (64.3)	5,200,000
중산층	71.2	165,000 (222,000)	일반단과학원 (34.1)	5,260,000
고소득	80.4	424,000 (607,000)	개인별 과외 (42.2)	5,980,000
F		16.571***		0.312

\*p<0.05 \*\*p<0.01 \*\*\*p<0.001

1)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경제위기 전후의 사교육비 지출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많은 가계에서 실질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고 타항목의 소비지출을 대폭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만은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사교육의 필요성은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값은 경제위기 이전보다 이후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간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시각에 대한 인식차이가 경제위기 이전보다 다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으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들이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효과성이 경제위기 이전과 같이 이후에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 경제위기 전후의 사교육비 지출수준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

변 인	경제위기 전후	평균	표준편차	t
월평균 사교육비	이 전	238,000원	328,300원	0.77
	이 후	262,000원	231,400원	
사교육의 필요성	이 전	3.40	1.00	3.84***
	이 후	3.67	0.87	
사교육의 효과	이 전	3.62	0.78	0.23
	이 후	3.60	0.78	

\*p<0.05 \*\*p<0.01 \*\*\*p<0.001

교육비를 포함한 소비항목들이 가계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소비항목들 중 가계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교육비, 사교육비, 식료품비, 외식비, 보건의료비 등으로 나타났다. 가계복지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항목들 중 외식비만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등과는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들 항목의 지출증가가 가계복지 수준을 하락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화된  $\beta$  계수를 중심으로 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해 보면 가계복지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항목들 중 사교육비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다음이 외식비, 식료품비, 공교육비, 보건의료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가 가계복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반영한다. 소비자의 선택은 개인의 선호에 의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 의사결정의 많은 부분은 사회적 가치관에 의존한다. 즉 가계의 교육비 지출패턴이 어떻게 구조화되는가는 소비자의 수요 뿐 아니라 그 소비자가 속해 있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학벌주의 가치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대학졸업장은 최소한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신분상승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체계 안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공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교육에 맹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무리한 지출이 가계의 경제규모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고 그러한 부담이 가계복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소비지출과 가계복지와의 관계

소비항목	B	$\beta$
식료품	-0.0077	
외식	0.0331***	-0.1586
피복	-0.0071	0.1884
주거	0.0009	-0.0809
교통통신	-0.0056	0.0130
공교육	-0.0130**	-0.0157
사교육	-0.0186***	-0.1003
교양오락	0.0058	-0.2294
보건위생	-0.0109	0.0947
보건의료	-0.0113*	-0.0436
상수	3.0489***	-0.0944
R2	0.325	
F	14.057**	

\*p<0.10 \*\*p<0.01 \*\*\*p<0.001

### 3. 교육비 지출과 재무문제

가계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다.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수나 가족형태가 변할 수도 있고 경제상황 변화로 인해 소득감소나 실업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가계육구는 소비가치가 생성되는 근원이므로 경제환경이 변할 때 소비가치와 더불어 가계의 욕구도 변한다. 그러면 경제적 상황변화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할 경우 교육비 지출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비 마련을 위한 설계 차원에서 볼 때 예산방식에 따라 가계의 재무문제의 성격이나 재무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계가 일반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에는 변동예산방식과 고정예산방식이 있다. 변동예산방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 감소분을 충당하여 기존의 교육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고정예산방식은 감소된 소득에 맞게 교육비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출을 조정한다는 것은 조정 가능한 소비항목의 지출을 줄여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교육비 지출로 대체하거나, 조정 가능한 지출을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보류하여 다른 재화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가계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한 결과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가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조정하며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 중 소득이 감소한 만큼 일부 항목의 지출규모를 줄여 주어진 소득범위 내에서 가계를 운영하는 고정예산방식을 적용하는 가계는 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정예산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기존의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감소분을 충당하는 변동예산방식을 적용한 가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저축한 돈으로 소득의 감소분을 충당한다고 응답한 가구가 3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부업이나 가윗일을 한 부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응답도 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황변동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었을 경우 대처방안별로 사교육비 지출이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감소한 만큼 지출을 줄여 조정하는 고정예산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가계나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부업이나 가윗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변동예산방식을 적용하는 가계간에 사교육비 지출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이유는 고정예산방식을 적용하는 가계는 소득이 감소되었을 경우 다른 소비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소득감소분을 충당하고 교육비 지출은 이전의 수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축 및 자산 등과 같은 여유자원이 있거나 부업이나 가윗일 등으로 부수입을 벌여 소득감소분을 충당하는 변동예산방식에 의해 재무관리를 하는 가계는 교육비 뿐 아니라 다른 항목에 대한 지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예산방식을 적용하는 가계간에 다른 소비항목들에 대한 지출은 차이가 있으나 교육비 지출은 차이가 없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표 4> 소득 감소시 대처방안별 사교육비 지출실태

대처방안	%	사교육비 평균 (편차)	F
고정예산방식 :			
소득감소분 만큼 지출 축소	32.1	293,300 (311,100)	0.521
변동예산방식 :			
부업 및 가윗일로 부족한 생활비 충당	17.6	216,500 (138,100)	
자산의 일부를 처분	9.9	318,500 (106,600)	
은행 및 신용카드로 차용	7.6	252,700 (210,900)	
저축으로 부족한 생활비 충당	32.8	268,800 (243,700)	

소득이 감소했을 때 주로 어떤 항목의 지출을 줄이며 조정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지출감소 폭이 가장 큰 항목은 피복비이고, 그 다음이 식료품과 여가활동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등은 지출감소 폭이 적은 항목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속성상 가장 줄이기 힘든 항목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가구의 55.9%가 교육비라고 응답하여 소득이 감소할 경우 다른 어느 항목보다도 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과 가계가 교육이라는 재화에 대해 가지는 수요나 필요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피복비, 주거비, 여가활동비, 보건의료비, 경조사비에 대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표 5> 소득 감소시 지출감소 폭이 큰 항목과 줄이기 어려운 항목

소비항목	지출감소 폭이 큰 항목	줄이기 힘든 항목
교육비	12.4	55.9
식료품비	24.0	21.3
피복비	28.7	4.7
주거비	1.6	3.9
교통통신비	5.4	9.4
여가활동비	22.5	0.8
보건의료비	0.0	3.1
경조사비	5.4	0.8

경제적 변동이 있을 경우 다른 소비항목과는 달리 교육비는 줄이지 않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가장 줄이기 힘든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그러한 교육비가 가계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각 가계는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초기부터 교육비 마련 계획과 관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대비를 하는 가계는 많지 않고 그로 인해 과도한 부채를 지거나 타항목의 지출을 대폭 줄여 가계소비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재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가계의 재무 문제는 사교육 시장이 온라인 교육시장으로 연결되고 있고 또 그러한 시장이 규모면에서 성장하고 있어 문제의 특성 및 양상이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 III. 디지털 시대의 교육비 관리 방안

컴퓨터의 정보처리 부문과 통신기술의 정보전송 부문의 융합을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혁명에 소비자의 시장환경과 소비생활 전반에 대해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는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거의 비용 없이 정보와 지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기욱·김난도·이승신, 2001). 여기서는 디지털 시대에 중년기 가족이 새롭게 취할 수 있는 자녀교육비 관리 방안으로, 온라인 교육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사교육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과 인터넷 재무설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사교육비와 공교육비 특히 교육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교육비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설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 1.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활용

##### 1)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현황 및 실태

온라인 교육은 원격교육, 가상교육, 사이버교육, 디지털학습, 전자학습 등의 다양한 용어로 쓰여지고 있으며, 인터넷의 보편적인 이용에 따라 초기에 컴퓨터를 이용한 단순한 학습형태이던 것이 최근 초고속망이 일반에 보급되면서부터 원격학습의 형태로 도약하게 되었다. 온라인 교육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교육사이트는 2001년 3월말 현재 500여개로서,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일보, 2001. 9. 7, 47면; 전인식, 2001).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은 2001년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약 35조원인데, 이중 온라인 교육시장규모는 500억원이며, 2002년에는 5조원으로 100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동아일보, 2001. 3. 19, 25면). 온라인 교육시장은 크게 흔히 온라인 과외사이트로 알려진 온라인 교육전문업체와 기존의 학원에서 구축한 온라인 학원, 또 학습지회사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지업체들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은 각 유형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sup>1)</sup>

##### (1) 온라인 교육전문업체

온라인 교육전문업체는 주로 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교육업체로서, 교육포털사이트와 과목별 전문사이트로 구분된다. 교육포털사이트는 학교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과목에 대한 강의나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과목별 전문사이트는 수학이나 영어, 논술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1) 분석대상이 된 교육사이트는 2000~2001년 사이에 일간신문이나 경제신문, 시사잡지 등에 그 이름이 소개된 적이 있는 업체로 국한하였다.

있다. 특징적으로 에듀넷은 교육정보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적 교육포털사이트로서 공교육으로서의 온라인 교육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한미르 교육포털은 한국통신에서 학교전산망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진행시킨 것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 과외사이트를 모아 여러 사이트를 비교하며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교육방송, 이팩스, 아이엘리트 등은 현직교사들이 운영하고 있고, 쌤넷은 일대일 방문 대면지도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전문업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듀넷과 몇몇 무료사이트를 제외하고 유료사이트가 대부분이며, 초기에 무료였어도 차츰 유료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유료인 경우 이용료는 사이트별, 강좌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오프라인 상의 과외나 학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어학강좌의 경우 이용료가 특히 높은 편인데, 예를 들어 차일드유유 경우에는 (주)프랭스가 미국과의 독점계약 하에서 미국 정규 교과과정에 따른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이버교사를 두고 학생과 쌍방향 학습과정으로 운영하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책정의 이유인 것으로 여겨진다.

## (2) 온라인 학원

일반학원들도 자체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교육사업에 진출하여 온라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학원 이용자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이며 입시수능정보나 면접예상문제, 기출논술문제, 수능모의고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한편, 잘 알려진 자체 강사진이 진행하는 일대일 과외 프로그램에 들어가 유료로 이용함으로써, 오프라인 상으로는 불가능하였던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교육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3) 온라인 학습지

온라인 학습지는 유아 및 초등학생 교육사업을 담당해왔던 몇몇 출판사들과 기존의 학습지업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온라인 학습지를 제공하고 교과공부와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초등학교 1~4학년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와이즈캠프는 하루에 2과목씩, 한달에 60시간 계획을 정해놓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한달에 한번씩 '온라인 학교생활'이라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학습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교과의 내용뿐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정보(예를 들어 자연탐험, 자연생태, 전통문화 등)를 사진자료들과 함께 제공받고 있다.

## 2) 온라인 교육의 장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온라인 교육이 사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저렴한 교육비에 있다. 배움닷컴이 회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1.7%가 월 1~3만원을 적정수강

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hackersnews, 2001. 6. 14), 대부분의 교육서비스 이용료는 이를 만족시켜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준급 강의를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접할 수 있는 점, 풍부한 정보의 획득, 시간적 자유로움, 제 학년에 국한하지 않고 수준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 등도 온라인 교육이 가진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문제점도 많은데,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이 미비한 곳에서는 이용이 어렵다는 점, 실시간 음성강의나 전자칠판의 열악한 품질, 콘텐츠가 부실한 사이트가 많은 점, 제한된 상호작용에 따른 학습동기 저하의 문제, 학습결과의 확인 및 평가의 문제, 교육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불신 등이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인우, 2001; 전인식, 2001; 중앙일보, 2000. 6. 1, 25면).

또한 최근 인터넷 교육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0년 10월 이에 대해 소비자정보를 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교육은 크게 사업자가 인터넷에 학습사이트를 개설하고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사이트 개설형'과 학습 소프트웨어나 CD롬을 판매하는 '프로그램 제공형' 등의 형태로 크게 나뉘는데, '사이트 개설형'의 경우 개설이 지연되거나 접속이 안되고 제때에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프로그램 제공형'을 이용한 경우는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공급되지 않고, 약속한 방문지도 등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www.cpb.or.kr, 소비자정보 제16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인터넷 교육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을 보면 1999년 353건에서 2000년 871건, 2001년 6월 현재 852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유형은 방문교육 실시, 해약 가능 등과 같은 계약 당시의 약속 불이행이 51.7%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19.1%,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절 16.9% 등의 순이었다(표 8) (sobinet.cpb.or.kr, 2001, 8. 29).

사교육비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국내의 교육환경에서 온라인 교육이 사교육 시장을 대체해 나갈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확대시키는 한편,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만 다. 우선 사업자측에서 적절한 수익모델 개발을 통해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에 따른 속도 및 품질 개선, 충실한 콘텐츠와 효율적 강의방법의 개발, 학습평가방식의 개선, 계약의 정확한 이행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 확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같은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부실업체의 적발이나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개정시 인터넷 교육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 마련 등 소비자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도 힘

<표 6>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종류별 현황

유형	업체명	대상	서비스 내용<표 6> 온라인 교육서	동영상 강의	이용료
온라인 교육 전문 업체	에듀넷 (www.edunet4u.net)	유·초·중·고 일반	교과 및 교과관련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제공 - 학년, 학기별 교과목 예습, 복습/ 고교생 대상 수능 유형분석, 논술 등 사이버강좌	○	무료
	한미르 (edu.hanmir.com)	초·중·고·일반	인터넷 포털사이트 한미르의 교육 전문 포털/ 기존의 여러 학습사이트들과 연결하여 특정 분야의 사이버강좌 제공, 추천컨텐츠 서비스	○	초·중 (강좌당 4,000~10,000원) 컴퓨터·어학 (강좌당 9,000~162,000원)
	인터넷교육방송 (www.iolta.co.kr)	중·고	200여명의 현직교사 교과서 사이버 강의/ 수능대비 학습, 전국단위 수능 모의고사 매일 1회 무료실시 - 개인별 전국석차	○	강좌마다 다름 (관리교사나 영업사원 상담후 이용)
	에듀박스 (www.edubox.com)	초·중·고·일반	초 : 조이넷스쿨-일일학습, 숙제도우미/중고 : 1318 코너 무료 종합교육정보서비스	X	무료
	디그 (www.dig.co.kr)	초·중·고·일반	교과서별, 주제별, 학부모페이지별 학습자료 검색	X	교과서 찾기 (월 2,000원) 질문, 상담 (월 5,000원)
	배움닷컴 (www.baecom.com)	유·초·중·고 일반	삼성출판사, 종로학원, 파고다외국어학원 등과 제휴, 교육 컨텐츠 제공 중고생을 위한 38개 과목 4,400개 무료강좌	○	컴퓨터 (강좌당 20,000~40,000원) 유아 (3개월기준종류별10,000~25,700원) 초등·고등 (강좌당 5,000원~ 15,000원)
	1318 클래스 (www.1318class.com)	중·고	학습자료 DB, 시험준비(중간, 기말, 모의고사란), 과목별, 출판사별 교재선택/ 사이버강좌 - 요점정리 다운로드 가능	○	중등 (19,000원~165,000원) 고등 (22,000원~198,000원)
	이패스 (www.epass21.co.kr)	고등학생 (초·중 준비중)	학교를 사랑하는 교사모임이 운영. 문제은행, 개인 성적관리, 전국테스트평가, 수능모의고사, 학습 및 진학상담	X	3개월 30,000원, 12개월 60,000원
	캡스터디 (www.capstudy.com)	중학생	중학생 학습시스템, 사이버 강좌	○	무료
	마이티스터디 (www.mightystudy.net)	고등학생	수능대비 진도표에 따라 강의진행, 매일 모의고사 - 개인성적관리, 논술테스트	○	월 20,000원, 연 220,000원
	씨스쿨 (www.cschool.net)	고등학생	대학입시에 관한 다양한 자료/ 교과관련 사이버강좌는 없음	○, X	외국어, 정보화, 디자인강좌 (월 강좌당 8,000원~22,000원)
	셈넷 (www.semnet.co.kr)	초·중·고	전학년 멀티미디어 교과학습자료/ 컴퓨터학습, 글짓기, 논술, 한자, 기초 영어/ 셈넷공부방 - 일대일 실시간 화상강의 및 관리	○	회원: 학습기간 및 관리내용에 따라 다름 고교 강좌별 월 17,000~35,000원
	에듀토피아 (www.edutopia.com)	고등학생	내신성적산출, 수능전략, 수능자료제공, 심리검사, 논술특강, 일대일 맞춤정보상담, 입시정보 제공/ 자매회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중앙교육문화사(A+)	X	일대일 맞춤정보상담 월 5,000원 대입올패스 서비스 99,000원
	아이엘리트 (www.i-elite.co.kr)	초등학생	초등학생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숙제도우미, 현장학습, 교사 수업용 자료/140명 현직교사가 자료제공	X	정보이용료 월 10,000원
	클릭스터디 (www.clickstudy.co.kr)	초·중·고 일반	정일학원, 이익훈어학원, 시사일본어학원 등의 강의제공	○	초·중 월 강좌당 8,000~10,000원 어학 강좌당 15,000~42,000원
대한생명인터넷교육사이트 (www.actzone.co.kr)	초·중·고	교과서 중심 학습자료 제공, 수능 사이버모의테스트	○	고객인 경우 서비스가입 신청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	
온라인 교육전문 업체 <수학>	매쓰월드(www.mathworld.co.kr)	중·고	중고교 수학강의 및 학습자료 제공	○	월 10,000원
	매쓰테크(www.mathtech.co.kr)	중·고	중고교 수학강의 및 학습자료 제공	○	월 15,000원
	정사모 (www.jungsamo.com)	중·고	수학 학습 사이트 질문과 답변 형식. 영어도 포함.	X	무료
온라인 교육전문 업체 <영어>	이익훈어학원 (www.ike.co.kr)	중·고 일반	AFKN 뉴스 받아쓰기 내용듣기 및 모의고사/ 텡스강좌 학습내용 제공 콩글리쉬 클리닉 온라인 강의	○	무료
	잉글리쉬114 (www.english114.com)	초·중·고 일반	단어 온라인 테스트, 토익 온라인 테스트, 어휘, 문법, 독해 관련사이트 정보/ 네이버, 엠파스, 다음 쿨사이트로 추천	X	무료
	윙글리시 (www.winglish.com)	중·고 일반	토익, 뉴스영어, 생활영어, 전화영어, 수험영어, 비즈뉴스영어 강좌	○	강좌당 월 12,000원~250,000원
	차일드유 (www.childu.co.kr)	초·중·고 일반	미국 ChildU사가 개발한 미국 초등학교 정규교과 과정에 따른 학습 컨텐츠 제공. 애니메이션 강좌. 학습활동, 시험점수 등 관리	○	연 297,000원
	펀글리쉬 (www.funenglish.com)	중·고 일반	이메일 작성법, 생활영어 자료, 토익, 토플, 비즈니스 강좌	○	토익코스(총9과목) 148,000원 왕초보, 비즈니스코스 87,000~175,000원

<표 6>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종류별 현황 (계속)

유형	업체명	대상	서비스 내용	동영상 강의	이용료
온라인교육전문업체 <논술>	구술닷컴 (www.goosul.com)	수험생	기출문제, 추천사이트 정보, 구술연접 강의	○	구술멤버십회원 전강좌수강 350,000원. 강좌당 10,000~40,000원
	수시119 (www.susi119.com)	수험생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학계획서 대필, 수시모집정보	×	무료 (2002. 3월부터 연회비 30,000원)
온라인학원	디지털 대성 (www.ds.co.kr)	고등학생	입시요강, 특별전형, 경시대회, 영역별 학습정보, 수능기출문제 정보, 모의고사, 진학지도가이드 서비스	×	모의고사, 진학지도가이드, 학습지 - 유료 (가입비 7,000~)
	종로엠닷컴 (www.jongrom.com)	중·고	교육자료, 내신기출문제, 실시간 생방송강의(일대일 맞춤과외)	○	과목당 월 25,000원 기출문제 이용 월 10,000원, 연 100,000원
온라인학습지	와이즈캠프 (www.wisecamp.com)	초등학생	인터넷 학습지, 하루 2과목씩 한달 60시간 공부서비스가정통신문, 온라인 학교생활 체크	×	월 24,000원 (2주일 무료학습기간)
	아이야닷컴 (www.iyah.com)	초등학생	인터넷 학습지, 각종 경시대회문제, 무료 영어학습자료 제공 (1주일 무료학습기간)	×	수리,영어 각 월 25,000원 두 과목 월 33,000원
	푸르넷 (www.purunet.com)	초등학생	전과목 학습서비스/ 종이접기, 컴퓨터, 백일장, 침삭지도	×	월 30,000원, 연 240,000원
	싱크빅아이 (www.thinkbig.co.kr)	초등학생	백과사전, 숙제방, 국·영·수 학습/한국의 자연탐험, 생태, 전통문화 사진	×	월 22,000원
	에듀피아 (www.edupia.com)	유·초중·고 일반	교육정보 및 자료 제공 고교생 대상 유료 사이버강좌 (중등강좌 무료)	○	고등 강좌당 15,000원~24,600원 모든 강좌 자유이용권 월 63,000원

<표 7> 인터넷 교육관련 소비자피해유형

피해유형	구체적인 내용 사례	건수 (%)
약속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대일 방문교육 미실시</li> <li>동영상 학습내용 미게시</li> <li>시연당시의 동영상 파일과 실제 파일의 품질 차이</li> <li>해약거부</li> </ul>	49 (51.7)
소비자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계약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은품으로 제공받은 물품에 대한 가격의 과다책정</li> <li>사이트 접속시 필요한 ID, PASSWORD 개설비 보상 요구 등</li> </ul>	17 (19.1)
청약철회 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사유로 거절</li> </ul>	15 (16.9)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당시 제공받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하자</li> <li>프로그램 설치 지연, 미설치</li> <li>미성년자 계약</li> </ul>	11 (12.3)
계		89 (100)

자료: sobinet.cpb.or.kr, 2001, 8. 29.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교육사이트의 급증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좋은 교육사이트의 선택요령, 인터넷 교육서비스의 효과적인 활용법과 같은 소비자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인터넷을 이용한 자녀교육비 설계

1) 자녀교육비 설계의 필요성

자녀교육비, 특히 대학교육비는 가계의 현재 소득 중에서 충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가계는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과 대출을 함께 이용하게 된다. 주택은행의 2000년 '가계금융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교육비마련이 저축목적 순위 1위를 차지하였고(www. ilyosisa. co.

kr, 2001.3.19), 2001년 정부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12만명분인 4,550여억원이 배정되었을 뿐 아니라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등에서 학자금 대출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경향신문, 2001. 9. 7, 23면; 한국경제, 2001, 7. 24, 2면) 현상들은 이에 대한 가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 가계를 대상으로 연구한 Lee(1998)는 자녀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현재 소득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21.5%에 불과하고, 대부분 저축이나 대출을 병행해서 이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연평균 5,622달러의 대학교육비 중 현재소득으로부터 충당되는 액수는 47.9%를 차지하였고, 대학교육비의 22.8%는 저축으로부터, 29.3%는 대출로부터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자녀교육비, 특히 대학교육비를 현재 소득 뿐 아니라



저축과 대출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자녀교육비 마련이 장기적 전략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Hanna와 Chen(1996)은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장기적 재무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위해 단기적 재무목표를 조정해야 하며, 조세정책, 투자대안의 수익률, 위험정도, 준비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재무자산의 구성 혹은 포트폴리오의 선택, 즉 장기적 재무설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생애주기의 각 단계마다 가계가 해결해야 하는 결혼, 주택마련, 은퇴 등의 사건이 있고, 이 사건에 따라 지출에 대한 요구도가 달라진다고 할 때, 그 중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교육비 마련을 다른 사건들과 함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현실적인 재무설계를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지출의 흐름을 파악해서,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잉여시기와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부족시기를 예상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인터넷 재무설계 서비스의 현황

98년 경제위기 이후 금리의 변화, 예금자보호제도 및 세율과 같은 금융관련 정책의 빈번한 변화, 이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 등 금융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계는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장단기 재무설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많은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에게 재테크 상담이나 조언을 제공하게 되었으나, 대부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해당 금융기관에 국한하는 상담의 형태를 띠고 있어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총체적인 금융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전문사이트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이전보다 다각적이고 대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가계의 체계적인 재무설계를 위한 수요를 좀더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표 8>은 인터넷 소비자재무설계 서비스산업을 분석한 양세정·성영애·손상희·윤정혜·이희숙·최현자(2001)에서 생애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인터넷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하여<sup>2)</sup>, 자녀교육비 설계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자녀교육비와 관련된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크게 금융전문사이트와 은행이며, 이들은 자녀교

육자금 마련과 관련하여 대체로 정보제공, 계산기, 생애재무설계 및 시뮬레이션, 기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업체마다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금융전문사이트들이 대체로 자녀교육자금 중심의 생애재무설계와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은행들은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고, 금융전문사이트들이 인터넷에서의 회원가입을 통해 혹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은행들은 인터넷 회원 혹은 인터넷 बैं킹 가입자, 즉 자사 고객들에게만 서비스를 한정하고 있어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의 차이점이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제공

분석대상이 된 금융전문사이트와 은행들은 모두 저축, 대출, 보험 등 기본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녀교육목적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네오머니, 웰시아닷컴, 국민은행, 주택은행 정도이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는 네오머니, 주택은행, 하나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주택은행이 자사상품에 국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하나은행은 타금융기관 상품들까지 포함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대출금리 등의 비교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모든 금융전문사이트는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

(2) 계산기

<표 6>에 제시된 금융전문사이트와 은행은 모두 계산기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목돈마련과 목돈증식을 위한 최적의 상품을 찾아주는 예적금계산기, 재산세, 부동산 취득 및 등록세, 상속세 등을 계산해주는 세금계산기, 대출상환방법에 따른 상환액계산, 대출관련 비용 등을 계산해주는 대출계산기, 급여생활자를 위한 연말정산계산, 연금지급액계산기, 이자계산기, 신용카드계산기, 환율계산기, 주식계산기, 채권계산기, 펀드계산기 등 다양한 계산기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적금계산기, 대출계산기 등은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최적 상품을 선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 생애재무설계 및 시뮬레이션

업체들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서비스가 생애재무설계 및 시뮬레이션이나, 생애재무설계 개념을 설명하고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생애주기의 한 과업으로 보는 것에서는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네오머니와 웰시아닷컴은 자녀교육자금 설계를 위한 매우 실제적인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오머니는 '교육자금 필요액 산정 → 대학교육을 위한 저축필요액 산정 → 행동계획 설정'의 단계적 서비스를 통해서, 웰시아닷컴

2) 본 연구에서는 생애재무설계 관점에서 자녀교육비 설계에 도움을 주는 인터넷 서비스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생애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세정 등에 따르면 선별적으로 분석한 11개 시중은행 사이트 중에서 4개 은행, 8개 금융전문사이트 중에서 3개 사이트만이 생애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석대상이 된 증권이나 보험사이트 중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인터넷 자녀교육비관련 재무설계서비스의 현황

유형	업체명	정보제공	계산기	생애재무설계 및 시뮬레이션	기타 서비스	이용자격	이용료	특징
금융전문사이트	네오머니 (www.neomoney.co.kr)	자녀교육 금융상품 학자금대출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대출, 세금 계산기	테마별 자금설계:기본입력사항→현재 교육자금준비현황→향후목표교육과정→시뮬레이션 결과보기 (연령별 예상 교육비, 과부족예상액, 교육비 상세내용 등) Financial Tools:대학교육비필요액, 저축계획 시뮬레이션	전문가 상담 유료전문서비스	대부분 비회원 이용가능	일부 유료 (39,000~200,000)	기본통계에 근거, 자금필요액을 소비자가 선택 대학교육자금마련 별도시뮬레이션
	웰시아닷컴 (www.wealthia.com)	자녀교육 목적 금융상품	예적금, 적립금액, 이자 계산기	라이프플랜마법사 - 40대 평생자금설계:니즈분석→근로소득 분석→자산분석→시뮬레이션 결과 및 유형별조건 (필요자금과 준비자금 누계추이, 맞춤형 포트폴리오 소개)	전문가 상담	회원	무료	결혼자금, 주택추가자금 같이 고려 최근 객관적 통계에 근거
	크레디앙 (www.credian.com)	금융상품 (일반)	예적금, 연금지급액, 세금, 대출 계산기	진단:투자성향진단, 가계재무 건전도 평가(부채, 보험, 저축) 설계:평생 재무설계 시뮬레이션	전문가 상담	회원 (기본정보-비회원)	무료	진단결과 및 시뮬레이션 산출 근거 제시부족 교육자금마련 별도고려 없음
은행	국민은행 (www.kookmin-bank.com)	금융상품 (자사)	예적금, 이자율, 대출, 부동산, 자동차, 보험료 등 각종 계산기	학생기:학자금 내손으로 마련하기, 장년기:자녀교육비 마련→재무설계 단계 설명, 자사 금융상품소개 생애재무설계 시뮬레이션 기능 없음 개인자산관리(PFM):계좌통합관리, 가계부	전문가 상담 가계부 (인터넷뱅킹)	회원, 인터넷뱅킹 가입자	무료	교육자금 시뮬레이션 없음 자사금융상품 정보제공
	주택은행 (www.hncbworld.com)	금융상품 (자사) 학자금대출 (자사)	예적금, 부동산, 대출, 신용카드, 환율계산기, 급여성활자를 위한 계산기 (연말정산, 퇴직금)	테마별 자금설계-자녀교육: 자금설계 시뮬레이션→저축찾기→대출찾기(자사금융상품 소개) 라이프컨설팅:생애주기 현금흐름도 포트폴리오관리:자산통합관리, 포트폴리오관리	전문가 상담 가계부	회원	무료	교육자금 시뮬레이션 기준이 오래되고, 사교육비 고려 안함 자금설계단계의 연계성 부족 자사금융상품 소개에 그침
	하나은행 (www.hanabank.co.kr www.hanaib.com)	금융상품 (자사) 학자금대출 (타사포함)	예적금, 이자, 외환, 신용카드, 대출 계산기	생활과 금융-학생기: 학자금 내손으로 마련하기(학자금대출상품 소개) 평생자금설계(비상금, 생활비, 교육비, 결혼비용, 대출상환, 주택구입비) - 평생필요자금과 수입금액의 비교	전문가 상담 가계부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가입자	무료	학자금대출 정보 타금융기관 상품포함, 상환방법, 대출금리 상세비교 중년기 교육비마련 고려안함
	한빛은행 (www.hanvitbank.co.kr)	금융상품 (자사)	예적금, 연금지급액, 세금, 대출 계산기	재테크진단 포트폴리오, 미래설계	전문가 상담	인터넷뱅킹 가입자	무료	대부분 서비스가 인터넷뱅킹가입자에 한해 제공되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움

도 '니즈분석 → 근로소득 분석 → 자산분석 → 유형별 조건'과 같은 유사한 단계를 통해 교육비 재무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첫단계로 자녀와 가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게 하는데 간단한 몇 가지 사항만 입력하면 그에 따른 평균 필요교육자금 수치를 계산해 주고, 현재 교육자금 현황과 가계재무상태의 파악을 통해 연령별 교육비의 과부족 예상액을 제시해 주며, 이를 토대로 적합한 저축방법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인적 자원부나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의 최신 자료를 근거로 공교육비만이 아니라 사교육비까지 포함하고 대학교육비 인상률까지 계산하는 등,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신뢰도가 높은 분석과정을 택하고 있다. 또 이들은 교육비 필요자금의 평균수치를 기

준으로 제시하고 그것의 몇 퍼센트를 달성하기를 원하는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자의 현실에 맞는 설계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웰시아닷컴은 '40대 평생자금설계'를 위해 자녀교육자금과 자녀결혼자금, 주택추가자금 필요액을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크레디앙은 '진단'과 '설계'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진단'부분에서는 투자성향 및 부채, 보험, 저축 등에 대한 가계재무 건전도를 평가해주고, '설계'부분에서는 평생동안의 재무설계 시뮬레이션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입력해야 할 사항이 많고 까다로우며, 결과의 근거가 잘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주택은행은 '라이프사이클 컨설팅' 코너에서 생애주기 현금흐름예시 등의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자금설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고, '테마별 자금설계' 코너에서 자녀교육비설계를 위한 '자금설계 → 저축찾기 → 대출찾기' 등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모양뿐이고, 세 단계가 연계성이 없을 뿐더러 대학교육 자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사교육비를 포함하지 않고 대학등록금으로도 오래된 자료를 사용하는 등 내용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진다. 하나은행의 경우 비상금, 생활비, 교육비, 결혼비용, 대출상환, 주택구입비 등의 평생필요자금과, 평생수입금액에 대비한 과부족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생활과 금융' 코너에서 생애주기를 '학생기 - 나홀로준비시대 - 신입샐러리맨 - 신혼기 - 가족형성기 - 정년퇴직기 - 실버노후기'로 구분하여 학생기에 '학자금 내 손으로 마련하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중년기 시기를 생애주기상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다.

국민은행은 '학생기 - 미혼기 - 가족형성기 - 장년기 - 노후생활기'의 생애주기 단계를 제시하고 학생기와 장년기의 과업으로서 교육자금마련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제안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없다. 한빛은행은 재테크진단과 포트폴리오 및 미래설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비마련을 특별히 취급하지는 않고 있다.

(4) 기타 서비스

이 외에도 모든 사이트들이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하고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개인자산관리(PFM) 프로그램을 도입해 회원만을 대상으로 계좌통합관리와 가계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개인자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 실시간 진단, 투자성향 분석, 최상의 포트폴리오 설계 및 추천,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한 재무설계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네오머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개인재무설계, 재무진단 클리닉, 비공개 투자자문 등의 서비스를 3만 9천원~20만원 정도의 유료로 제공하고 있어, 보다 전문화·개인화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인터넷 재무설계서비스가 매우 유용하기는 하나, 자녀교육비설계를 위해 그 활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대부분의 업체가 회원가입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은행의 경우 인터넷 뱅킹 회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를 비교해 볼 수조차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소비자가 입력한 소득, 자산 등의 자료들이 지

속적으로 보관되어야 하는 계좌통합관리나 가계부,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들은 그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그 외의 각종 계산기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활용은 비회원이나 인터넷 상의 회원가입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보다 실제적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 자료가 정확할 때만이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비 자료의 최신성, 정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분석시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 필요자금 시뮬레이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과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이용하기 쉬워야 한다. 어떤 사이트는 소비자가 입력해야 하는 자료가 간단하고 입력이 용이한 반면, 어떤 사이트는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소비자가 입력하도록 하여 그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이런 점에서 네오머니나 웰시아닷컴처럼 평균치를 제시하고, 그것의 몇 %정도를 달성할 계획인지를 입력하도록 한 아이디어는 매우 성공적인 것이라 하겠다.

넷째, 생애재무설계 이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분석대상이 된 모든 사이트에서 생애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이론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생애주기단계도 각 사이트마다 다르고, 실제로 재무설계시에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웰시아닷컴은 이런 점에서 합리적인 단계를 따르고 또 자녀교육비 설계시에 결혼자금, 주택추가마련계획 등을 같이 고려한 점에서 성공적이라 보여진다. 즉, 교육자금 마련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결혼자금이나 노후자금을 함께 고려한 설계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소비자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수많은 인터넷 재무설계사이트를 평가하고 그 활용법을 제시하며,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및 가계재무설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자교육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조사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년기 가계의 교육비 지출실태와 변동추이,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예산방식에 따른 교육비 조정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사교육이 가장 조정하기 힘든 항목이며 가계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활용과 인터넷을 이용한 자녀교육비 설계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자녀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방안들의 많은 부분이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수정·보완되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기피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강의방식을 선호하며 학습효과가 크게 나타나는가,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어떤 강좌,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가, 어떤 특성의 소비자가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떤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거나 못하는가, 소비자는 어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원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기를 원하는가, 교육자급에 대해 어떤 정보를 원하며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자녀교육비를 현재 생활비, 저축, 대출, 기타 방법들 중 어떤 비중으로 충당하고 있는가, 금리, 조세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방법의 이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미리 저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어떻게 마련하는가, 언제부터 마련하기 시작하며 그 시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대학교육자금과 노후자금의 상충관계는 어떠한가 등과 같은 소비자행동에 대한 연구가 우선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 및 재무설계서비스 시장에서 목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합한 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제도는 적절하며 올바르게 활용되고 있는가, 교육비공제 등과 같은 조세정책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러한 방안들의 수혜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등의 제도 및 정책관련 연구와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평가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연구 또한 소비자복지를 위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나아가서 디지털 시대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정보활용능력과 재무설계에 관한 기본지식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이는 소비자교육으로 가능할 것이며, 이에 다양하고 적절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과 보급, 시행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및 자녀교육비 설계에 관한 온라인 사이트를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해 주며, 그 이용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는 소비자중심적 온라인 사이트의 구축과 같은 적극적인 실행 노력도 요구된다.

□ 접수일 : 2002년 7월 26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월 20일

####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2001). 대학생 학자금 대출 '용돈마련 수단' 전략, 이자싸고 졸업 후에나 상환, 2001년 9월 7일자 23면.
- 교육부(1998). 교육비 지출현황.
- 김기욱·김난도·이승신(2001). 소비자정보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기욱·서병숙·이연숙·계선자·박미석·주인숙·이미선·한정화(1998). 경제난과 가정의 건전소비전략. 가정생활 개선 진흥회 심포지엄 발표집, 32-67.
- 동아일보(2001). 교육/초등생 싸게 맞춤 학습 '온라인 과외' 뜬다. 2001년 3월 19일자 25면.
- 동아일보(2001). 전문교육사이트 인기...수강료 학원보다 저렴. 2001년 9월 7일자 47면.
- 박인우(2001). 사이버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교육개발원.
- 양세정·성영애·손상희·윤정혜·이희숙·최현자(2001). 소비자재무설계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산업 유형별 현황분석. 소비자문화연구 4(2), 107-130.
- 전인식(2001). 사이버 교육시장.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은행(1995). 도시가계 저축시장 조사.
- 중앙일보(2000). 인터넷 과외, 아직은 취약점 많아. 2000년 6월 1일자 25면.
- 한국경제(2001). 학자금 대출 꼼꼼히 따져 보세요. 2001년 7월 24일자 2면.
- 해커즈뉴스. 인터넷 교육이용료 1만~3만원이 적당. <http://www.hackersnews.org>.
- 한국소비자보호원. 컴퓨터통신 교육 소비자피해 크게 늘어, 소비자주의 필요. <http://www.cpb.or.kr>.
- 인터넷일요시사. 수렁에 빠진 교육4, 271호. <http://www.ilyosisa.co.kr>.
- Abdel-Ghany, M. & Sharpe, D.L.(1997). Consumption patterns among the young-old and old-old.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1(1), 90-112.
- Brown, A. & Deaton, A.(1972). Surveys on applied economics: Models of consumer behavior. *Economic Journal* 82, 1145-1236.
- Chung, Young Sook(2001). Sources of family income and investment in children's private educatio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5(3), 193-199.
- Davis, C.G., Moussie, M., Dinning, J.S., Christakis, G.J.(1983).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food expenditure patterns among racially different low-income households. *Wester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 183-196.
- Dolan, E. G.(1986), *Economics (4th ed.)*. New York: The Dryden Press.
- Hanna, S. & Chen, P.(1996). Efficient portfolios for saving for colleg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115-122.
- Lee, Seonglim(1998). *Parental strategies for financing children's postsecondary education*.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Michael, R.T. & Becker, G.S.(1973). On the new theory of consumer behavior.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75, 378-396.
- Milbrath, L.W.(1990). A brief-pungent comparison: Modern unsustainable society and a society designed to be sustainable. *Proceedings of Human Ecology: Strategies for the Future, Michigan State University, April 20-22*.